

중국 위구르족을 향한 꿈!

- 김만복 선교사 / 2003. 6. 20 -

안녕하세요? 저는 김만복 선교사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어 교수 사역을 하고 있고 저의 아내는 영양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기 사역 때 섬겼던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984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중국으로 부르심을 받고 1994년에 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의 위구르족을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부터 '서역'이라 불리는 실크로드의 동편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위구르족은 당나라 때의 영광을 뒤로하고 잊혀진 내륙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그늘 아래 소수 민족으로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공산주의라는 이중 장벽에 갇혀 있어 복음을 전하는데 극히 제한되어 있는 위구르족을 겁 없이 가슴에 품고 나아갔던 저는 현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위구르인과의 만남은 중국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았으며 위구르인들의 가슴속엔 중국 한족을 향한 증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많은 위구르인들은 삶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런 억압에 대한 분노를 폭력으로 분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구르인들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서 절망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에서 위구르어를 배우며 교수와 학생들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다른 동료 선교사와 어느 도시로 전도하러 갔을 때 꿈을 꾸어 적어 있습니다. 꿈에서 저는 높은 곳에 있는 한 성 안에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창백한 많은 영혼들이 갇혀있었고, 한쪽 구석에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혼이 이렇게 기도 했습니다.

“ 하나님! 이 곳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

이들은 비록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들의 영혼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구르족은 과거에 조로아스터교, 불교, 이슬람이 꽃피었던 민족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꽃피고 열매 맺어져야 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위구르족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위구르족을 찾아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꿈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전달되길 소망 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